

광주일고 '괴물' 정성철 완봉投... 정상 환호

10K 3피안타 쾌투

덕수고 3-0 제압

대회 4번째 우승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호남 야구 명문' 광주제일고가 초특급 투수 정성철을 내세운 덕수고를 누르고 제6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제일고는 이로써 지난 제59회 황금사자기고교야구대회 우승 이후 4년만에 통산 4번째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았다.

광주제일고는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대회 결승전에서 선발 정성철이 9이닝동안 10탈삼진, 3피안타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고, 짧게 끊어치는 집중력 높은 타격을 앞세워 '강호' 덕수고를 3-0으로 완봉했다.

이날 경기초반은 광주일고 에이스 정성철과 덕수고 에이스 정영훈이 한치 양보 없는 투수전으로 흘렀다.

하지만 초고교급 강속구 투수 덕수고 정영훈은 광주제일고의 짧게 끊어치는 정교한 타격과 집중력에 무너졌다.

광주제일고는 3회초 2사 2루에서 1번 정승인이 천금같은 좌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리며 승기를 잡았다. 이어 2번 강민국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정승인을 불러들여 순식간에 스코어를 2-0으로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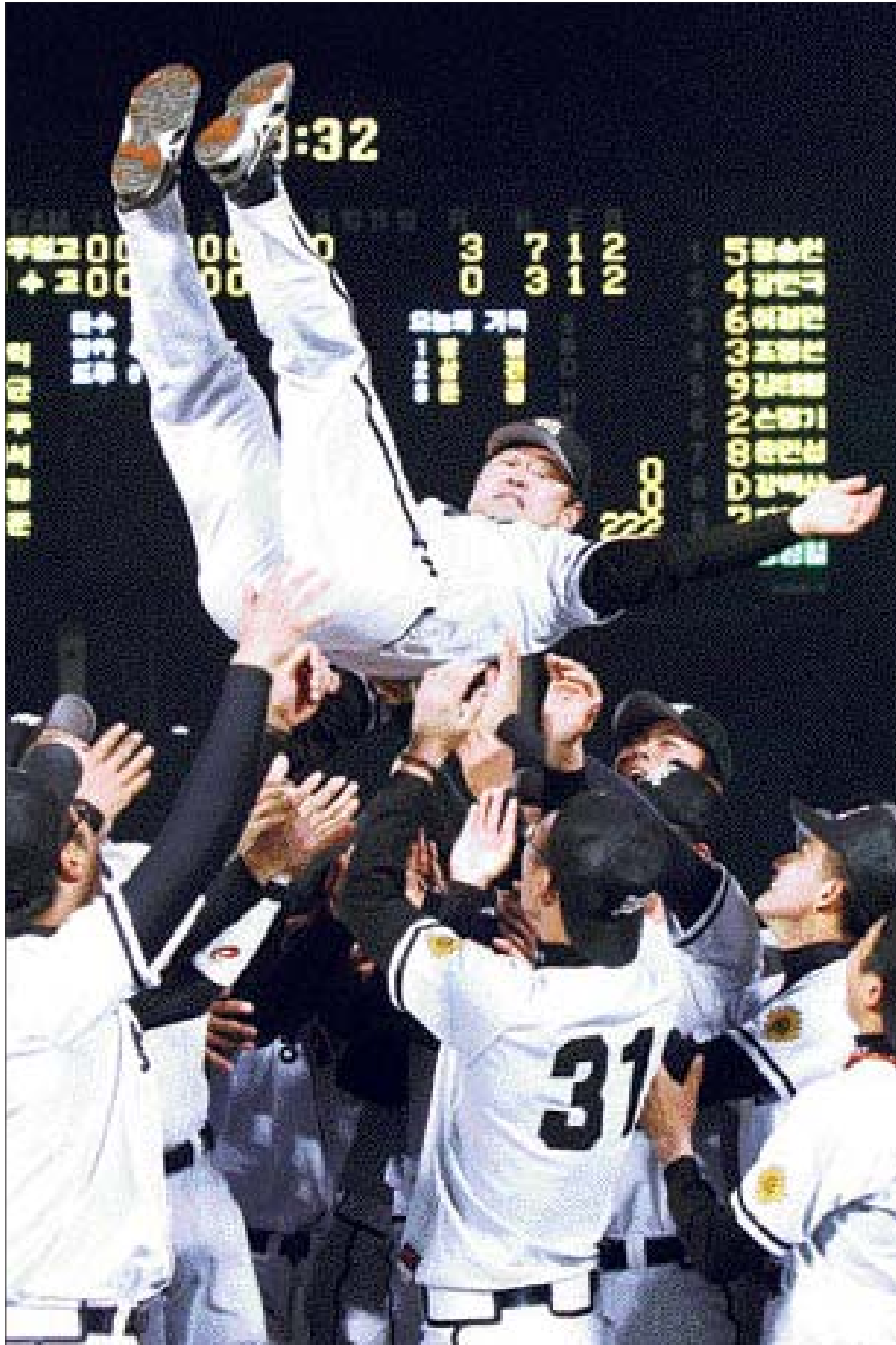
덕수고 에이스 정영훈은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고, 광주제일고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광주제일고는 계속된 2사 3루에서 3번 허경민이 좌전안타로 1점을 보태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이어진 3회말 덕수고의 공격에서 광주제일고 정성철은 2사후 볼넷과 중전안타를 맞으며 위기에 몰렸으나 3번 배상현을 파울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상대의 추격을 저지했다.

덕수고는 이날 광주제일고 에이스 정성철의 빠른 볼과 구석구석을 찌르는 변화구에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고 완봉패 했다.

이날 승리의 수훈자인 광주제일고 에이스 정성철은 이번 대회 2승으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돼 두 배의 기쁨을 누렸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제일고 선수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62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덕수고를 3-0으로 꺾고 우승을 한 후 허세한 감독을 행개래 치며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MVP 정성철 투수

"맞춰 잡는 투구 주효
대통령배 2연패 도전"



"좋은 경기로 승리를 이끌어준 친구들과 끝까지 믿어주신 감독님께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돌리고 싶습니다."

광주제일고의 정성철(18·3년)은 제62회 황금사자기고교야구대회 3게임에 등판, 15이닝 동안 22탈삼진, 3피안타, '0'의 방아울로 팀 우

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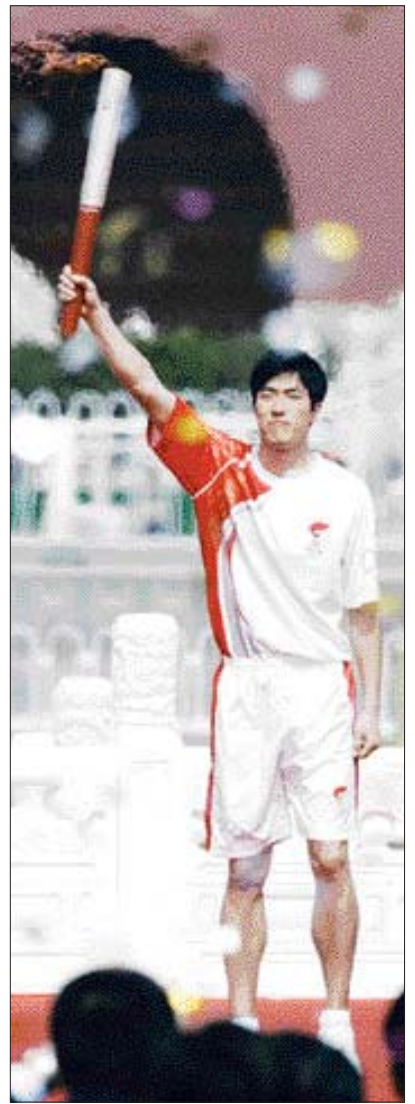
결승전에서 완봉승을 거둔 정성철은 첫 등판에서 최우수 선수의 영예까지 거머쥐며 황금사자기 스타로 떠올랐다.

정성철은 "어제 부상으로 1·2학년 때 공을 던지지 못해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다"며 "우승을 결정 짓고 마음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철은 또 "맞춰 잡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좌·우 코너워크와 슬라이더가 잘 들어갔다"며 "타선과 수비의 도움을 받아 좋은 투구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고팀인 KIA 타이거즈에 입단하는 게 꿈이라는 정성철은 "전국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만큼, 대통령배 2연패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팀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중국의 육상 허들대표 류시양이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도착 행사에서 아테네로부터 도착한 올림픽성화를 들어올려 환호하는 중국인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림픽 성화
베이징 도착

130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올림픽을 밝혀줄 올림픽 성화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 도착,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베이징 올림픽 성화는 그러나 채화 행사에서 인계식에 이르기까지 티베트(시짱·西藏)의 분리독립 요구를 위한 시위로 얼룩져 앞으로 국내의 봉송에서 험난한 과정이 우려되고 있다.

아테네를 출발한 성화는 이날 특별기에 실려 오전 9시15분 베이징의 서우두(首都) 국제공항에 도착, 간단한 영접 행사를 받은 후 텐안먼(天安門)광장으로 옮겨졌다.

텐안먼 광장에서는 삼엄한 경비 속에 상대한 환영 행사가 배풀어졌다. 텐안먼 일대와 베이징 시내 요소요소는 테러와 시위방지를 위해 수일 전부터 검문검색이 강화됐다.

성화는 이날 베이징에서 하룻밤을 잔 후 1일부터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타를 시작으로 19개국 21개도시에서의 해외 봉송을 거쳐 5월4일부터 국내 봉송에 들어간다.

'화해의 여정(和譜之旅)'으로 명명된 이번 성화 봉송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130일동안 총 13만7천km 여정을 달린다. 해외 봉송 도시에는 서울과 평양이 포함되며 성화는 오는 4월2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특별전세기 편으로 직접 봉송된다.

성화 인계식이 열린 30일 아테네 파나테니온 스타디움 밖에서는 티베트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 21명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중국의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는 계속됐다.

지난 24일 올림픽 발상지인 올림포스에서 개최된 성화 채화식에서도 시위대가 집입, 행사를 얼룩지게 했다.



서재응

첫 승 제물 곰사냥 나선다

2연패로 시즌을 시작한 KIA 타이거즈가 1일 홈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첫 승에 도전한다. KIA는 1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홈 개막식을 갖고 두산과의 3연전에 들어간다. 대구 구장에서 우승 후보 삼성 라이온즈와 히트 경기를 치렀던 KIA는 두 번째 상대로 난적 두산을 만나 첫 승 신고를 향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KIA 금주의 프로야구

지난해 코리안 시리즈 준우승 팀 두산은 빅 리거 김선우와 신예 진아곱이 마운드에 가세하고, '두산 육상부'로 불리는 발 빠른 이종욱·고영민·민병현 등이 견제 감팀으로 꼽힌다. 게다가 지난달 29일 우리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우천으로 연기되면서 2선발부터 KIA와의 경기가 나서면서 투수진도 만만치 않다.

두 팀의 승부는 '테이블 세터'의 발에 달렸다. KIA는 이용규, 발데스, 김원섭, 이종범 등 발 빠른 선수들로 두산의 기동성에 맞붙을 농게 된다. '테이블 세터'가 얼마나 상대 배터리를 얼마나 흔드느냐가 초반 관세 결정의 갈림길이다.

KIA는 중심타선의 부진이고민이다. 삼성과의 2연전에서 선발 호세-윤석민의 퀵리터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중심타선의 부진으로 1승을 챙기는데 실패했던

오늘 두산 상대 홈 개막전
서재응 첫 선...쾌투 기대

만큼, KIA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심타선에 첫 승의 향방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홈 3연전 이후 KIA는 대전으로 자리를 옮겨 한화 이글스와 타선 싸움을 벌이게 된다. 한화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개막 2연전에서 홈 2연패의 수모를 겪었지만, 2경기에서 5개의 홈런을 쏟아내며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위용을 과시했다.

대전구장은 좌우 98m·중앙 114m에 불과해 투수들의 '무덤'이다. 지난달 30일 경기에서 맞붙은 한화와 롯데는 대전구장에서 6개의 홈런을 주고 받으며 뜨거운 타격전을 펼쳤다. 반면이 한화의 한방에 무너져 왔던 KIA는 최희섭·나지완 등 파워 히터들의 한방에 경기의 흐름이 좌우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 선발투수

Table with 4 columns: 구장, 구단, 투수, 투수. Rows include 광주 (KIA 두산 서재응 랜들), 잠실 (LG 삼성 박명환 오버몰러), 사직 (롯데 SK 송승준 쿠비안), 목동 (우리 한화 스크비 유원섭).

승부의 키는 짧은 볼펜 투수들이 쥐고 있다. 투수들에게 불리한 대전 구장에서 KIA의 짧은 투수들이 노련한 한화 볼펜과 공포의 '클린업 트리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내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다.

1일 부산에서는 화려한 타격쇼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롯데가 지난해 우승팀 SK와 이변스를 상대로 승수 향기에 나선다. LG 트윈스와 2연전에서 1승1패를 챙기며 무난한 출발을 한 SK는 새 용병 투수 쿠비안을 내세워 롯데의 연승 제동에 나선다.

LG는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과 잠실 3연전을 벌인다. 신인 정찬원의 개막 깜짝 호투를 선보인 LG는 이승호, 이범준, 유규민 등의 투수들로 삼성과의 마운드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은 2연승의 기세를 몰아 양준혁-심정수-크루즈의 중심타선으로 LG 마운드를 공략해 2008시즌 초반 기선제압에 나선다.

우리 히어로즈는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역사적인 홈 개막전을 갖고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인다. 타선에 몰이 오른 한화와의 대결이라 1패를 기록중인 우리의 첫 승 신고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에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경기장 및 모어레스토랑에서 좌석까지 제공됩니다.
승수에 일치한 대한민국 최고로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351-0095